

서정원의
불교미학산책

⑫ 정각원 하단(영가단)

허물어지는 모든 것 관조하는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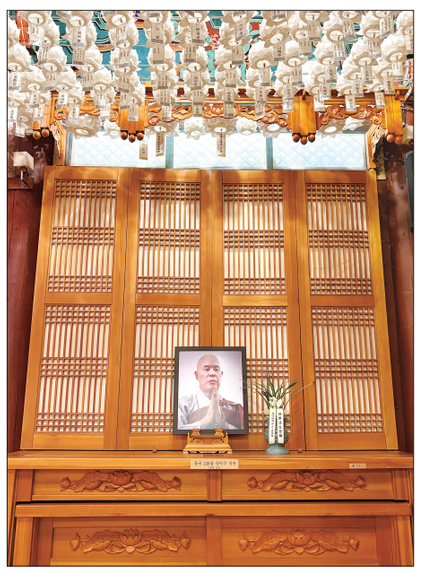
지난 회에 이어 우리는 정각원 주련의 세 구절이 해석되지 않은 채 법당 안으로 들어선다.(해당 구절은 '동국상방대광명東國常放大光明[동국대학교에 항상 부처님 대광명이 비추고]', '법륜상전어법계法輪常轉於法界[부처님의 법이 더욱 빛나 온 누리에 쉼 없이 구르며]', '자타일시성불도自他一時成佛道[나와 네가 모두 함께 성불하리라]'이다.)

보통 법당은 부처님과 보살님, 혹은 여러 성자나 호법신 등 해당 법당의 주존을 모신 상단(불단), 불법을 지키는 신중을 모신 중단(신중단), 영가를 모신 하단(영가단)으로 이뤄져 있다. 법당에 들어가면 주존을 모신 상단에 먼저 인사를 드린 다음, 법당을 지켜 주시는 중단에 인사를 올리고 유주무주의 영가와 인연 있는 분들을 기억하는 하단, 즉 영가단에 시선이 머물게 된다.

처음 사찰 예절을 배울 때 법당의 상·중·하단에 삼배를 올리는데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던 게 기억난다. 불교를 믿으니 부처님께 예경 올리는 것은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왜 갑자기 신중과 같은 '비현실적 존재'에게도 절을 해야 하는 것인지, 남의 집 영가들에게 왜 예경을 올려야 하는지, 남의 집 제삿날에 가면 같이 절을 올리는지 등이다. 이해가 가지 않으니 중· 하단의 예경이 생경하기만 했다. 그래서 법당에 들어가 상단 부처님을 향해 절도 하고 한참 올려다보며 기도를 드리지만 중단에는 가볍게, 하단은 거의 스치듯 예경을 올렸다.

그런데 나에게도 십수 년의 시간이 흐르니 주변의 많은 것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힌두교에서는 파괴, 그것도 궁극적 파괴의 여신 이름을 '마하칼리(Mahākālī)'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풀면 '위대한 시간'이다. 즉, 시간의 여신이 파괴의 여신이고, 모든 것은 시간 앞에서 파괴된다는 뜻이라 할 수 있겠다. 나의 아버지도 그랬고, 외조부, 외조모님도 시간 앞에서 허물어져 지금은 정각원 하단, 영가등 명표에 이름으로만 남아 계신다. 같이 이름을 올리신 둘째 고모님은 대단한 불자셨는데 큰 산만 보이면 반드시 그 안에 절이 있을 것이라면서 보이지도 않는 부처님을 향해 예경을 올리시던 분이셨다. 그렇게 열심히 불교를 믿어도 허물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아니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허물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일지도 모른다.

허물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을 생각할 일이 많아지자, 어느 순간 법당에서 가장 오래 바라보고 사색하게 되는 곳이 영가단이 되었다. 앞으로도 주변 많은 것들이 허물어지면 더 오래 바라보게 될지도 모른다. 아니, 사실 나라 할 것도 없는 게 다 무너져 영가단의 흔적으로 남는 게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 지은 것은 허물어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도 이에 사무치게 된 건 실재하는 타인의 죽음들 속에서다.



정각원 영가단.

영가와 인연 기억하는 영가단
'동국상방대광명'은 '추억하는 빛'
주련 세 구절, 깨달음으로 이어져

20세기 작가 버지니아 울프를 다룬 영화 '디아워스'에서 예민한 천재인 자신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는 남편 레너드를 보고 울프는 짓궂게 말한다. "내 소설에서는 누군가 반드시 죽어야 해." 이에 레너드는 왜 누군가가 죽어야만 하며 죽음은 슬프지 않느냐고 묻는다. 이 질문에 진지해진 울프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죽은 이들로 인해 남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어."

우리는 앞서 정각원 주련의 세 구절을 해석되지 않은 진주로 품고 들어왔다. 여기서 사람을 살게 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 사유하고, 진주알을 염주로 묶어 굴려 보고자 한다. 본래 인도인의 심상에서 동쪽은 과거를, 서쪽은 미래를 은유한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가야하는 극락세계는 서쪽에 있는 것이라고도 한다. 반대로 〈법화경〉의 서막인 '서품'을 보면, 부처님께선 동쪽으로 일만팔천의 세계를 비추시며 그 안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낱낱이 밝히신다. 이는 모든 과거의 인연일체 그대로를 비추는 숙명통의 빛이다. 동쪽으로 상징되는 본인이 걸어오신 모든 과거를 돌이켜 보시고 부처님께선 결심을 하신다. 자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목적을 이제는 실천하실 때라고. 지금이야말로 결정적인 그때이며 허물어 간 과거는 지금을 위해서라고. '그대들 모두 붓다가 될 것이다'라고 선언할 시간이라고.

나에게 동쪽이란 이런 진주알이며 '동국상방대광명'은 지금 삶을 가능하게 한 허물어져 간 다른 모든 이들을 추억하는 빛이다. 부처님께선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자신이 깨닫고서 바로 열반에 들지 않고 범천권청에 따라 덧없음을 아심에도 45년을 버티신 단 하나의 이유를 말씀하시기 위해 허물어져 간 일체의 모든 것을 상기하셨다. 마치 옛날 영사기 필름이 릴 사이를 지나가듯, 서쪽에서 온 미래는 동쪽의 과거로 흘러간다. 우리는 영사기가 비춰 스크린에 쬐이는 허상에만 집중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동쪽으로 흘러간 과거의 필름들을 물끄러미 주시하고 계신다. 그래야만 스크린 위의 삶이 의미가 있게 된다.

앞서의 산책에서 정각원의 주련은 두두물물의 일월성신 모든 것이 부처님이라는 나옹 스님의 게송에서 실제 역사상에 오셨던 단 한 분의 부처님으로 포커스를 집중하는 〈화엄경〉 '여래현상품'의 게송,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세 구절의 진주알, 마지막으로 믿음에서 열반으로 이어지는 〈화엄경〉 '현수품'으로 이뤄져 있음을 확인했다.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세 알의 진주를 진주 조개잡이 어부로서 이야기를 풀어 보자.

공간의 경전인 〈화엄경〉에서는 두두물물, 일월성신에 편재한 법신 비로자나가 보리수 아래의 석가세존으로 나타나신다. 시간의 경전인 〈법화경〉은 동방 세계를 비추어 부처님 자신과 모든 중생의 과거를 추억하시고, 이제 새로이 나갈 시간이라고 선언하신다. 사실 나는 앞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영축산에 있으면서 법륜을 굴리며 너희를 기다릴 것이라고. 이 사실을 안 중생들은 영축산에 계신 부처님을 직접 뵙기 위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으며 정진하게 된다. 이 몸과 마음을 다한 중생에게 영축산의 부처님께서 대중들과 함께 나타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 모두 붓다가 될 것이다. 이를 믿어라. 여래는 허망한 말을 하지 않으니." 이를 믿으면 중생은 열반에 들어가게 된다. 다시 정리하면 법화가 없이 화엄은 의미가 없다. 법화를 통해 방만하게 늘어 놓은 화엄의 장광설이 중생이라는 명확한 방향성을 띠게 된다. '동국상방대광명', '법륜상전어법계', '자타일시성불도'라는 〈법화경〉의 어구가 중생의 신심으로, 그리고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동국대 박사〉

십팔불공법 머물러 중생 수용
세 가지 존재 고통에서 구제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㉔ 지장보살의 공덕 찬탄

오늘 장면은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공덕을 찬탄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지장보살마하살이 '대기명주 총지'를 연설하자 '거라제야산'이 진동하고 수많은 하늘 음악은 절로 울려 퍼지며 하늘의 묘한 향과 꽃과 보배들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을 본 '대길상천녀', '구대길상천녀' 등 1만8천 천녀들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님 참으로 기이합니다. 저희는 사대(四大: 지·수·화·풍)를 자유자재하게 굴릴 수 있지만, 사대의 초·중·후의 모양과 생멸 순서는 알지 못합니다. 지장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얻었으므로 그 모양과 생멸의 순위를 환히 알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찬탄하셨습니다.

"지장보살은 마치 밝은 해가 세간의 어둠을 없애는 것처럼, 중생의 나쁜 소견과 무명의 어두움을 다 없앴느니라. … 지장보살은 부처님만이 갖추고 있는 열여덟 가지 특성인 십팔불공법(십력과 사무외, 삼염주, 대비)에 머물러 중생들을 버리지 않고 모든 중생들을 수용하네 … 두타의 공덕을 지니고, 성문의 모습을 나타내며 모든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어, 세 가지 존재(삼유三有: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곳에 존재하는 것)의 고통에서 구제하네. 마치 저 허공을 일체 중생들이 모두 수용하는 것 같이 지장보살도 이러한 무량무변한 모든 공덕의 법을 다 성취하였느니라."

이때 '무구생'이라는 제석천이 나타나 말합니다.

"공포에 떠는 이에게는 성(城)이 되고, 밝은 달과 같이 길을 가르치네. 선근(善根)을 냄은 대지와 같고 미혹을 부수기는 금강과 같네. 더위에는 일산이 되고 병을 고치기는 용한 의사와 같네. 하루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공덕과 큰 명예는 수없이 많은 겁 동안 다른 지자(智者)의 덕을 일컬음보다 훨씬 나을 것이네. 중생들이 과거의 나쁜 업으로, 전쟁과 질병과 굶주림으로 괴로울 때 모두를 벗겨내네. 열 가지 나쁜 세계에 빠져 고통의 핍박을 받더라도, 지장보살에게 귀의 공경하면 그 고통을 모두 없애리. 고통의 수레를 타고 서로를 해치더라도, 지장보살에게 귀의 공경하면 모두 참고 사랑하는 마음에 머물게 되리. 개개의 공덕과 좋은 약의 종자를 구하고자 지장보살에게 공경하면, 구하는 것 모두 얻어 만족하리."

"온갖 곡식, 약초의 밭, 또 아들과 딸 내지 종(奴)을 구하고자 지장보살에게 공경하면, 그는 구하는 것 다 얻어 만족하리. 갖가지 몸으로 화현해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고, 구족하게 보시하는 그 공덕은 중생들을 가엾게 여기기 때문이네. 가령 백천겁을 그치지 않고 그 공덕을 찬탄하더라도 오히려 다 말할 수 없거니 그러므로 모두가 지장보살께 공양해야 하네."

이렇게 지장보살을 찬탄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장십륜경〉의 제2권에서는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궁금한 점을 물으며 부처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위해 굴리시는 법의 열 가지를 수레바퀴에 비유해 열 가지 법(십륜품)을 국왕의 정치와 비교 대조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지장보살의 발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게송으로 물었습니다. "어찌 이 부처님국도에는 더럽고 악한 것이 많고, 지혜인은 떠나가고 악인만이 하께 살며 무간지옥에 떨어질 죄를 많이 지으며, 부처님 법 비방하며 욕하고 헐뜯으며 나쁜 소견 일으켜 망령되게 단견과 상견을 주장하나이까? … 무명이 유정들의 눈을 가리고 탐욕과 질투와 간사함이 많나니, 어떻게 법륜을 굴리시어 이 중생무리들을 구제하오리까?"

이때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본원(本願)의 힘으로 말미암아 십종의 불륜(佛輪)을 성취해 이 불토의 오탁악세에 살고 있다.… 그리하여 삿된 스승에게 귀의하여 성인의 길을 잃고 삼악취를 향해 가고 있다."

"지장보살이여, 나는 이와 같은 제1의 불륜을 성취하여, 이승과 저승의 옳고 그른 것을 훤히 다 알며, 모든 천마와 외도의 삿된 주장을 항복받고 법륜을 굴리어 큰 범행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나는 저 유정들의 5가지 무간업을 없앤다. 나쁜 근을 없애고 굳은 번뇌를 없애며, 온갖 번뇌가 다한 해탈의 오묘한 결과를 세우고, 모든 중생을 그들이 바라는 바에 따라 안치하고 삼승이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께서 이루신 크나큰 도력의 힘으로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시며, 해탈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송림사 주지〉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